

권노갑·한화갑·김옥두·박지원씨 등 ‘한길’

■ DJ의 사람들

김대중 전 대통령(DJ) 50년 가까운 정치 연륜만큼 인맥도 국내 정치인 중 최고로 평가된다.

우선 DJ 인맥의 대명사는 ‘동교동계’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택이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것에서 유래했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을 따르던 상도동계와 함께 한국 정치계보의 양대 산맥으로 통했다.

동교동계의 핵심은 권노갑·한화갑·김옥두 전 의원. DJ와 40~50여년간 동고동락한 명실상부한 최측근이다.

특히 권노갑 전 민주당 상임고문은 김대중 의원 비서관, 평민당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이란 자리를 모두 거쳐간 측근 중의 측근이다. 고교 영어교사이던 1963년 제6대 총선을 앞두고 목포상고 4년 선배인 김 전 대통령을 따라나섰던 그는 동교동계의 만형이자 김대중 정부 시절 ‘권동실(세상은 권노갑을 중심으로 돈다)’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20년이었다.

하지만, 권 전 고문은 한보 비리, 현대 비자금 사건 등으로 국민의 정부 시절 전후로 3번이나 구속됐으며 당내 소장파의 정풍운동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연설하는 모습마저 DJ를 닮았다 해서 ‘리틀 DJ’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최측근이다. 신안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한 그는 1967년 7대 총선에 출마한 DJ와 선거운동원으로 인연을 맺는다.

그는 1978년부터 1980년까지 긴급조치 위반 등으로 그는 3차례 옥살이를 했고 신군

고문·옥살이 마다 않고 민주주의 일군 평생 동지

조세형·한광옥, 이종찬 前 국정원장 등도 인연

학계 출신 싱크탱크 ‘성공한 대통령’ 만들기 담당

부의 정치탄압이 극에 달했던 1980년대 경찰과 안기부의 삼엄한 감시를 뚫고 외신기자들에게 DJ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집권 후 당시 김종권 청와대 비서실장, 이종찬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신주류 3각 편대를 형성했으며 1998년 국민회의 원내총무, 1999년 사무총장을 거친 뒤 2000년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1등으로 선출되며 일약 대선주자 반열에 올랐으나 2002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했다.

이들 외에도 동교동계 인사로는 조세형 전 총재권한 대행과 한광옥 전 총재 비서실장, 김상현·정대철·안동선·이운수·설훈·이훈평·윤철상·남궁진·이철·채영석·이석현·최재승·조재환·김경재·장성민·김원길 전 의원 등이 있다.

비록 원조 동교동계 출신은 아니지만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직전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모셔온 측근이었다. 김 전 대통령이 그에게 보여준 신뢰는 동교동계를 압도할 정도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진도출신인 박 의원은 뉴욕 한인회장이던 지난 1983년 미국으로 망명 온 DJ와 첫 인

연을 맺었고 1987년엔 급기야 미국생활을 접고 DJ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자 그는 초대 청와대 공보수석으로 출발해 문광부 장관, 정책기획수석, 정책특보, 비서실장 등으로 변신하며 김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했다.

박 의원은 참여정부 때 실시된 ‘대북송금 특검’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김 전 대통령을 떠나지 않고 최근까지 수석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들이 DJ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다면 DJ가 대통령이 되면서 뒤늦게 참여한 학계 출신의 싱크탱크는 ‘성공한 대통령’ 만들기를 담당했다.

DJ 싱크탱크 핵심은 서울대 상대 출신의 ‘변형윤 학파’로 불리는 이른바 ‘학원학파’ 학자들이다.

주요 인물로는 김대중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윤원배 전 급급부 부위원장, 이선 전 산업개발연구원장, 이진순 한국개발연구원장, 고 전철환 전 한국은행 총재, 김효석 의원 등이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난 16일 오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입원중인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권노갑(왼쪽부터), 한화갑, 한광옥, 김옥두 전 의원 등 동교동계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DJ 사형’ 헌신적 구명활동 펼쳐

박광태 광주시장
대통령(DJ)의 비서를 지낸 대표적인 DJ맨으로 통한다. 정치 인

생의 시작도 DJ와의 인연이었음은 물론이다.

1971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통령 유세를 도왔고, 유신 반대활동을 하다 1년여 동안 옥고를 치렀다. DJ 비서가 된 것은 1979년. 당시 “자네, 집에서 나를 수행해주게”라는 DJ의 요청에 주저없이 ‘목숨을 다해’ 당신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했다고 한다. 그는 1980년 5월 신군부에 의한 정치인 예비 검속 때 동교동에서 군인들에 무차별 구타당한 뒤 김대중 선생이 연행되는 모습을 지켜봤던 아픔도 겪었다.

박 시장은 80년 광주항쟁 당시 DJ가 내란 음모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아 헌신적인 구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그는 1985년 김 전 대통령이 미국 망명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자, 민주화추진협의회 노동국장들을 맡아 DJ를 곁에서 도왔다.

우여곡절 끝에 14대 국회의원으로 등원한 박 시장은 지난 1993년 국회에 안기부장을 출석시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공 음해사건을 추궁해 사과를 받아내기도 했다.

박시장은 이날 조사를 통해 “참으로 허탈하고 비통한 심정에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린다”며 “시민의 애통한 뜻을 모아 삼가 명복을 빌고 부디 천상에서 평안히 영면하시길 바란다”고 애도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DJ의 입’으로 지근거리서 보좌

박준영 전남지사
전 대통령 간의 인연이 시작된 것은 지난 1991년부터다. 당시

중앙일보 뉴욕 특파원이었던 박 지사는 대통령선거에서 낙선한 이후 미국에 강연자 온 김 전 대통령을 처음 조우했다. 박 지사는 김 전 대통령의 목표 북교초등학교 19년 후배이기도 하지만 연배 차이가 너무 커 그 전까진 별다른 인연은 없었다고 한다.

두 사람의 인연은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박 지사가 대통령 국내언론 비서관을 맡으며 본격화됐다. 박 지사는 이듬해인 99년 5월부터는 김 전 대통령의 공보수석비서관 겸 대변인으로서 2년여간 소위 ‘DJ의 입’ 역할을 하며 가까운 거리에서 김 전 대통령을 보좌했다. 2001년 9월부터는 국정홍보처장으로 일했으며, 특히 2000년 6월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하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박 지사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돈독한 인연의 끈을 이어갔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24일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14년 만에 고향을 찾아, 살아생전 마지막 고향 방문을 박 지사와 함께 했다.

박 지사는 “김 전 대통령께서는 온갖 고난과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한국인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셨다”며 “200만 도민과 함께 한없는 존경과 애도를 표하며, 영면하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후견인으로... 동지로... 조연자로...

홀로 된 동반자 이희호 여사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반세기를 함께 한 이희호 여사는 18일 고난과 영광의 ‘동행’을 마무리하고 동반자를 홀로 떠나보냈다.

1922년 유복한 의사 집안에서 태어난 이 여사는 이화여고, 서울대 사범대, 미국 유학을 거쳐 이화여대에서 강의를 했던 당대의 엘리트이자 신여성이었다.

이 여사가 2년 연하의 김 전 대통령과 처음 만난 것은 1951년 피란지 부산에서였다. 당시 전쟁 중에 지인의 소개로 몇 차례 대면했던 이 여사는 10년 뒤 첫 부인과 사별한 김 전 대통령을 우연히 다시 만나 1962년 운명적인 결혼에 이르게 된다.

이 여사는 김 전 대통령이 옥고를 치를

때는 옥바라지로, 미국 망명 때는 후견인으로, 가택연금 때는 동지로, 양궁 총재 시절에는 조연자로 정치 역정을 함께했다. 특히 청와대의 안주인이 된 뒤에는 여성과 아동 인권 신장에 힘썼다.

하지만, 이 여사는 2002년 자신의 유일한 한 친자인 3남 홍길에 이어 차남 홍업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잇따라 구속되는 참담함을 맛봐야 했다.

남편이자 동지였던 김 전 대통령이 투병하는 동안 그는 짬짬이 뜨개질을 해 장갑과 덧신을 만들어 남편에게 써주며 지극정성을 다했다. 병원과 가까운 동교동 자택을 두고 하루도 빠짐없이 병상을 지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분실 공고

광주 어등산 현진에버빌
103동 1905호 분양계약서를
분실해서 찾고 있습니다.
010-6508-0250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안종선(570716-1636719)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채권자에 대한 공고, 회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년 8월 5일

공 고 인: 김선미, 안세원, 안소연

한정승인승인일: 2009. 7. 28.

공고기간: 2009. 8. 19. ~ 2009. 10.18. (2개월)

연 락 처: 서울 성북구 장위 3동 107-7

안세원(011-9264-2084)

안세원(011-9264-2084)

안세원(011-9264-2084)

안세원(011-9264-2084)

안세원(011-9264-2084)

안세원(011-9264-2084)

안세원(011-9264-2084)

안세원(011-9264-2084)

안세원(011-9264-2084)

안세원(011-9264-2084)

안세원(011-9264-2084)

안세원(011-9264-2084)

안세원(011-9264-2084)

안세원(011-9264-2084)

안세원(011-9264-2084)

안세원(011-9264-2084)

안세원(011-9264-2084)

안세원(011-9264-2084)

안세원(011-9264-2084)

안세원(011-9264-2084)

안세원(011-9264-2084)

회사인수원함

■ 업 종

LED, 반도체, 자동차부품등

년 50억 이상 매출가능 품목 업체

■ 인수금액: 자기자본 10억 내외

■ 오-너 직접 연락바람(중개사절)

■ 연 락 처: 010-8448-4869

자본감소공고

당사는 2009. 8. 18.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300,000,000원을 금50,000,000원으로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10,000원의 주식 25,000주에 대하여 유상소각하고 발행주식 총수 80,000주를 5,000주로 감소시킬 것을 결의 하였으므로 구 주권을 가진 사람은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주권을 당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19일

세븐이앤씨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37-1

대우다오빌 지하1층 5호

대표이사 강래성

명리철학 수강생

▶주먹구구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체계적으로 배우실 분 환영합니다.

▶주2회 6개월은 공부해야 합니다.

▶수강료 월10만원 교재2만원입니다.

▶꼭 공부할 사명만 필요합니다.

▶돈보다 좋은 인연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 부담없이 방문해 주세요.

노정명리연구원

456-1666, 010-5717-1666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 교육명
부동산개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의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무교과)

○ 모집기간
2009. 8. 10(월) ~ 2009. 9. 4(금)

○ 교육비
67만원 (강의를 시작한 이후 환불은 불가)

○ 수강자격
구분 전문인력의 유형

자격을 취득한 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건설기술자, 자산운용관리인력 등

학 석사 학위자
4년제 대학 재학중이거나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구역주권이 있는 사람 등

실무경력자
국가·지방자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기업인력 관리 및 또는 개인사무소 등

※ 위와외에 하는 전문인력 교육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주권이 있는 사람
○ 2009학년도 교육인력(01년)만 가능

구분 교육일정 비고

01년 1차 9/7~10/23 2차 11/2~12/17 월요일 오후 2시부터 강의시간(총 6시간 강의)

※ 비특수교육
○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지원자에 한하여 국·도의 부동산개발 관련 시설·장비·도움이며, 전문기로서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학회 및 기관과의 Networking을 형성할 예정이다.

○ 교육장소
광주대학교(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grad.kr 참조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

원 장 이명규 교 수 062-670-2421

부 원 장 강동욱 변호사 062-233-3119

사무국장 김병철 062-233-3119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 연설, 리더십, 설득력 향상과정

① 교육목표: 대중 및 상대에게 감명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스피치 교육을 통해 리더 및 지도자로서 품위를 갖게 하는데 있음.

② 모집인원: 50명 선착순
※ 지원대상: 직장인, 일반인, 주부, 7업체장 및 학생, 말을 잘하고 싶은 사람

③ 강의요일 및 시간
· 야근(매주 금요일) 19:00~21:00

④ 교육기간: 2009년 9월 7일~12월 18일(15주)
※ 교육요령: 실습위주교육 (실습70%, 이론30%)

⑤ 교육과정: 대화 및 연설기법, 발표력, 남 앞에서 두려움없이 말하기, 각종 행사 사회 진행 요령 및 연설문 낭독 요령, 각종 원고 작성요령, 리더 및 지도자로서의 품위 향상 교육, 지방선거 공식선거 출마 연설문 작성 및 지도

⑥ 원서교부및등록기간
· 등록기간: 2009년 7월 13일(월)~8월 31일(월)
· 등록시간: 월~금 (오전 10시~ 오후 5시)
· 등록장소: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과 (호실관4층)

⑦ 등록방법(수강료: 200,000원)
· 직접방문접수 또는 전화 신청 후 수강자 명의로 입금
· 예금계좌: 광주은행 134-107-109843(여금주: 광주대 평생교육원)

⑧ 수료 후 특전: 수료증수여(총장명), 스피치지도사 자격증수여, 각종선거연설회 파견, 각 기업체, 학원단체스피치, 발표력 강사 및 사회단체장 추천

⑨ 담당교수: 한 상 태
· 한국음반연설인종인회 회장 - 제 17대 대통령선거 유세위원장
· 한국 정치 연설인 교수 - 대통령령 전국유망인종인회 대표부장

· 각종 스피치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장
· 기초광역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국회의원후보연설회 및 연설문 작성(30년)
· 시·도·법정 한국음반연설회 광주본부 회장

※ 지사: 말하기 교본, 스피치 문법 연설 리더십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TEL: 062)670-2167, 2168
FAX: 062)670-2475 HP: 010-5692-9998

부동산투자클럽 공인중개사무소

(용봉동 하이마트 옆 옥교 바로 아래)

매도, 매수 ☎ 011-641-0925
상담환영 062)515-4985

추천 금메달리스트 - 펜션부지최적

월출산 국립공원 입구 대지면적 7,685㎡ 가든식당 매매
-식당 (연회석 300석 완비 - 피로연, 회갑연, MT회적),
체육시설 (수영장, 족구장), 농장 (옛돼지, 오리, 토종닭),
단란주점, 숙박업 - 현 성일 중, 모든시설 허가됨
-매매가 3.3㎡당 32만원-

■ 고시텔매매 ■ (금년 5월 준공, 최신시설, 풀 옵션)
대 282㎡ / 건 560㎡ 총 52 실(물 당 월 23만원)
전대 후문 건너 체육공원 인근 -매 8억 5천

임 야

▶16,925㎡(체육관리지역) - 나주 남평 (충흥스파랜드 입구)

- 매 3.3㎡당 8만5천원

대 지

▶683㎡(제 3종 일반 주거지역) - 남구 진월동(광주대 인근)

- 매 11억

▶814㎡- 용봉동지리지구 현대 3차 앞 - 매 3.3㎡당 300만원

삼가주택

▶대 436㎡/건 1487㎡(6층전월)-오차동 아파트단지 입구

-매 17억

※ 사원모집 - 삼가 중개, 경매컨설팅 하실분 모집입니다.